마음 한번 돌리면 惡도 善이 되니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㊹ 홍해아 받아들이는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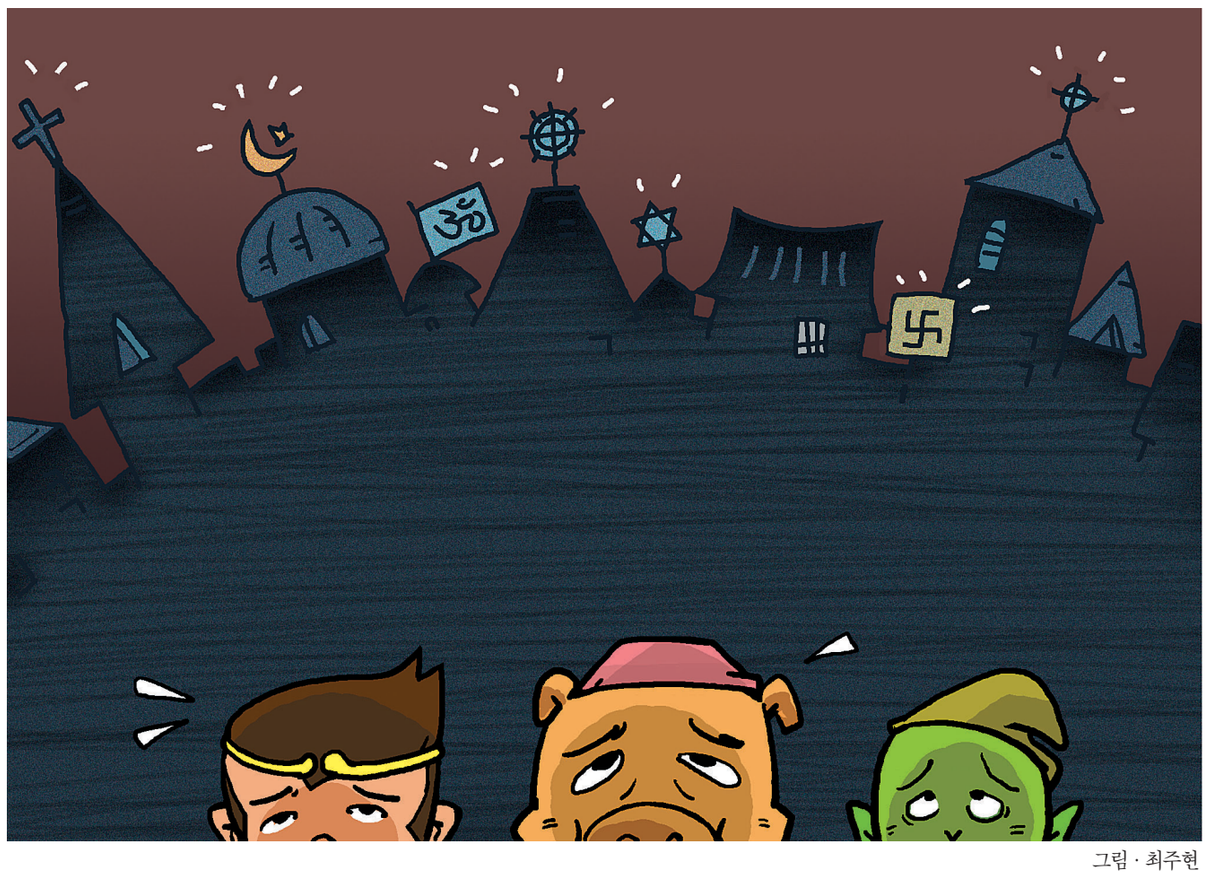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보살님을 모셔오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손오공은 죽다 살아나는 바람에 좀 힘이 빠져 저팔계가 보살님을 청하러 가는데, 신통한 요괴가 이를 탐지해 냅니다. 그리곤 수를 쓰지요. 저팔계는 요괴 감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손오공이야 척보면 알아보지만, 미련퉁이 저팔계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먹어 보아야 아는 수준. 그런 저팔계 앞에 홍해아가 관세음보살로 분장하고 척 나타나네요. 언제 관세음보살 계시는 남해까지 가는가 싶던 게으름뱅이 저팔계가 얼마나 반가워 했겠어요? "아이고 보살님! 실은 여차저차…" 그렇게 여차저차 하다가 저팔계마저 요괴의 동굴에 떨어지네요.

아니 그런데 요괴가 보살로 막 분장하고 그래도 괜찮은거냐구요? 제한 같은 건 없냐구요? 아무리 요괴라지만 지킬 건 지켜야지, 그런 짓 하다간 큰 벌 받는 거 아니냐구요? 그런 말씀들 마세요. 제한 없어요. 벌도 없어요. 그런 거 가려서 하면 그게 요괴이겠어요?

우리 불교 문중에는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있습니다. 위험한 현상에 대한 경계도 있고요. 불교 이전에 인도의 요가 전통이 있었고, 불교는 그것을 기본으로 받아들인 바탕 위에 그 독특한 수행체계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만큼 수행의 방법과 과정에 대해 섬세하고도 친절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종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내와 경계에 따라 수행하면 병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에 비하면 타 종교는 그런 방법에 있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자라서가 아니라, 또 지금 불교계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어느 정도 공인된 이야기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서구에서는 천주교나 개신교의 교역자들도 불교의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불교의 명상법은 종교를 초월하여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전철 같은 곳에서 좀 풀린 눈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하고 외치는 분들, 그분들이 불교도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교도는 신앙심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전혀 어떤 체험도 없이 그냥 미친 것일까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분들도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엄청나게 강렬한 종교 체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열리고, 천사가 강림하고…하는 그런 체험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전철로 뛰어 나오게 되기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교도가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불교 문중에는 그런 현상들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있거든요. 어떤 현상들은 수행의 진척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있고, 어떤 현상들은 어떤 고비를 넘을 때 나타나는 장애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상식을 넘어선 행태를 보이기 힘든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눈 밝지 못한 저팔계는 요괴의 분장에 속아 잡혀가고 말았네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은 손오공이 나서서, 둔갑술로 요괴의 소굴을 염탐하여 저팔계가 잡혀 간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홍해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부하를 보내 현장법사 고기 맛을 보시라 청하는 것을 알고는, 홍해아가 저팔계에게 한 짓으로 복수를 합니다. 우마왕으로 변신, 요괴의 부하를 속여서 요괴의 동굴로 당당하게 들어가죠. 요괴한테 절까지 받아가며 극진한 대접을 받다가, 현장법사 고기 먹자는 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미루는 바람에 정체가 드러나지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아버지 행세 하면서 홍해아 속여 먹은 게 얼마나 통쾌했던지! 죽을 뻔하고 쳐져있던 손오공이 기운이 되살아납니다. 역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하하. 아직 손오공의 심보가 이렇네요. 아무튼 기운차린 손오공이 직접 관세음보살님 청하러 남해로 날아갑니다. 홍해아가 자신으로 분장하여 저팔계 잡아갔다는 소리에 발끈 성을 내시는 보살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군요. 그렇게 인상적으로 성을 내신 보살님, 정병에 사해오호(四海五湖)의 물을 다 담아 드시네요. 너무 무거워 손오공도 들지 못합니다. 그걸 한 손으로 척 드신 겁니다. 앞으로 관세음보살 상이나 그림을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세요. 손에 정병을 드신 경우, 그 정병에 사해오호의 물이 가득 담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새삼 신심, 존경심이 무럭무럭 피어나실 겁니다. 그 정병뿐만이 아닙니다. 탁탑천왕(사천왕 가운데 한분이죠?)에게 천강도라는 보배로운 칼 36자루를 빌려가지고 홍해아 잡으러 출발하십니다. 우선 정병에 담긴 물의 정수를 좌악 깔아 삼매진화에 대한 방비를 마치곤, 보배로운 36자루의 천강도로 아름다운 연화좌를 만들어 내십니다. 물론 신통력으로 모습을 바꾼 것이지요. 겉보기엔 아름다운 연화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천강도 36자루! 그리곤 손오공을 시켜 홍해아를 유인케 하곤, 홍해아가 와서 덤벼들자 그 연화좌를 버리고 공중으로 피신합니다. 보살까지 손쉽게 물리친 홍해아, 무서운 게 없겠지요? 세상이 돈짝만 하게 보이겠지요? 그 앞에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연화좌가 있으니 어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홍해아 자만심이 스스로 무너뜨려
긴고아 씌우니 그 이름 선재동자
남해까지 일보일배, 성찰 기회줘

"어험! 보살까지 물리친 나 같은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로구나!" 그런 기분으로 척~ 앉아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삿된 길로 신통을 얻은 자들의 말로이지요. 보배로운 자리, 아름다운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바로 천강도가 온 몸을 꿰뚫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지에 도달했어!"하고 자만에 빠지는 순간, 얻었던 신통력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거지요. 왜 그러냐구요? 신통력 얻으면 그냥 얻은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냐구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신통력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던가요? 어쨌든 강한 몰입과 집중이라는 삼매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삿된 마음으로도 삼매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신통을 얻었다 해보세요. 그 애초의 삿된 마음이 장애가 됩니다. 삿된 마음은 궁극의 도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작동하게 되지요. 신통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욕망이 움터나오고, 그렇게 욕망을 채우다 보면 신통의 근원이었던 삼매가 흐트러집니다. 자연히 신통도 사라질 수밖에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하는 오만, 내용 없는 껍데기뿐인 형편없는 인간이 덜렁 남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아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앉을만한 자리지!"하면서 덜컥 앉아버린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삿된 신통을 얻은 이들의 말로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삼쾌선생의 명쾌한 해설! 감명을 좀 받으셨습니까요? 좀 구체적인 현실의 이야기까지 해 볼까요? 혹 세간에서 신점(神占)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등을 통해 얻은 신비한 힘으로 미래를 직관하는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처음 그런 능력을 얻어 신점을 치기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매우 영험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름을 날리게 되고 돈도 벌게 되면 욕심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자연 능력도 떨어지고 결국 영험도 없어진다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영업을 그만두고 기도에 들어가곤 한다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기꾼이 된다구요.

삿된 길에서 성취를 이루었던 존재는 애초에 악한 길에 빠졌던 이보다도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한 족쇄를 채워놓지 않으면, 예전에 이루었던 삿된 성취의 유혹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홍해아에게 손오공 머리에 씌웠던 쇠고리를 여러 개 채우고서야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리곤 홍해아의 잘못된 업을 바로잡기 위해 남해까지 일보일배(一步一拜)의 고된 수행을 시키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와, 피의 길이었겠지요? 홍해아 무릎도 다 벗겨지고, 이마도 깨졌을 거예요. 지금도 종종 스님들이 거룩한 뜻을 펴기 위해 삼보일배(三步一拜)라든가 일보일배의 힘든 수행을 하시곤 하는데, 그 연원이 바로 홍해아의 불문귀의 의식이었다는 것! 이제 아셨지요? 그리고 이 홍해아에게 내린 새로운 이름이 선재동자(善財童子)라는 것! 그것도 이제 아셨지요? 화엄경에 나오는, 53 선지식에게 참방하여 법을 구했던 선재동자가 바로 이 선재동자라는 말입니다.

아고고, 정말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들은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이 기발하게 꾸민 이야기입니다. 전에 소크라테스가 즐겨 인용했던 경구, "너 자신을 알라"를 그리스 말로 하면 "알라, 니꼬라지!"라고 농담을 했더니, 그리스 말 철자가 어찌 되느냐고 물었던 분이 있었네요. 그분과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앞에 말한 '언구제러블'의 철자를 묻는 분이라든가, 지금 일보일배나 선재동자의 이야기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다시 말하지 않을 사람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혹시 나칠계님도 그런 사람에 포함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 그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으시다구요? 흠, 그럴 것 같네요. 순진하고 나칠계님의 거리가 꽤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삼보일배나 일보일배의 수행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구요? 또 그런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구요? 세 걸음 걷고 한잔씩 마신다던가, 한 걸음 걷고 한잔씩 마시면 취해서 도저히 멀리 갈 수 없을 것 같다구요?? 익! 삼보일배(三步一杯), 세 걸음에 한잔이 아니라, 삼보일배(三步一拜)입니닷!

에효~. 나칠계님의 방해공작은 늘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여기서 강하게 내칠 수도 없는 것이, 이 대목이 바로 홍해아라는 요괴를 불문으로 받아들이는 대목이잖아요. 나칠계 같은 분이라 해서 대뜸 '언구제러블'의 딱지를 붙인다면 우리가 힘써 이야기하려는 뜻과 어그러진다는 것이 문제로군요. 참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나칠계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인지 모를(?) 웃음을 주는, 삼쾌선생의 지나치게 고상한 곳으로 나갈 위험이 있는 이야기에 재미있는 양념을 치는 존재로 인정하기로 했지요? 삼쾌선생의 바다같이 넓은 마음, 그 진수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하고 넘어갑니다요. 그렇기에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하더라도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 땅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 선이라던가 악을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고 관계성 속에서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생각! 모든 존재를 평화와 행복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 이 홍해아의 이야기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불문에 들어오는 이야기에, 가장 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칠계 같은 분도 너그럽게 인정하는 삼쾌선생처럼…. 이크, 돌팔매 날아올까 싶어 그만 그칩니다요.



면 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2015 불교국제박람회 '입선' 수미단,닫집,법상,경탁 외 법당장엄 일체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1-276-5251 / 010-6857-0108



홍법사 청동대불(26m)



수종사 범종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